

정정훈. 2021.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4(1): 177-205.

Jeong, Jeonghoon. 2021. “Disabled Feminist Social Movement, The Transversal Politics Against Intersectional Op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4(1): 177-205.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1.4.1.177>

[일반논문]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에 대한
교차성 페미니즘적 독해

정 정 훈*

한글초록

이 논문은 장애여성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의 창립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이하 <불구의 정치>)에 제시된 정치학을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론적 독해하는 작업이다. 즉 이 논문은 여성주의 실천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그 실천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실천에 기초한 정치적 지식이 어떻게 이론과 공명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2절에서 <불구의 정치>가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억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불구의 정치>는 단지 장애여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의 억압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민,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이 자신들의 억압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억압에 대한 인식을 억압의 교차성과 지배 매트릭스 개념과 연결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이 교차적 억압의 매트릭스에 대한 저항을 <불구의 정치>가 어떻게 파악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구의 정치>가 지향하는 저항은 단지 특정 정체성의 권리 투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선언문은 장애여성이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긍정하고 그 정체성에 뿌리내림과 동시에 다른 소수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연대를 저항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연대의 과정에서 서로의 정체성이 변화된다고 파악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ISSN 2635-4632

마지막으로 결론인 4절에서는 <불구의 정치>를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독해하는 작업의 의의를 정리하고 이 선언문이 한국사회에서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지식을 어떻게 맥락화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주제어: 장애여성운동, 장애여성공감, 불구화/장애화, 교차성페미니즘, 정치적 지식

— 목 차 —

1. 장애여성운동과 교차성 페미니즘
2. 불구화 장치, 복수적 억압의 조합
3. 의존과 독립의 불가분성, 그리고 횡단의 정치
4. <불구의 정치>와 장애여성운동의 정치적 지식

1. 장애여성운동과 교차성 페미니즘

이 논문은 장애여성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의 창립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¹⁾(이하 <불구의 정치>)에 천명된 정치학을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²⁾을 지향하며 창립되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비장애인과

1) 이 선언문은 다음 url에서 볼 수 있다. <https://wde.or.kr/2%EC%9B%94-%EC%9B%B9%EC%86%8C%EC%8B%9D%EC%A7%80-%EA%B8%B0%ED%9A%8D-%EC%9E%A5%EC%95%A0%EC%97%AC%EC%84%B1%EA%B3%B5%EA%B0%90-20%EC%A3%BC%EB%85%84-%EC%84%A0%EC%96%B8%EB%AC%B8/>

2)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 장애여성공감소개. <https://wde.or.kr/about/>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성차로 인해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요구를 가진 주체임을 의식하면서 장애운동과 여성주의운동을 접합을 실천해오고 있다. 출범이후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 독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여성정책연구 및 자료발간해왔다. 또한 회원모임과 자조모임으로서 장애여성 극단 ‘추추는 허리’와 장애여성 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를 운영하고 있다.

<불구의 정치>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대중화됨과 동시에 분화되는 맥락 속에서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손희정(2015)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분화라는 현상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규정할 수 있다. 손희정은 2015년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페미니즘 담론은 기존의 여성주의 운동과는 다른 배경과 지향을 드러내고 그 경제적, 문화적 조건이 1990년대나 2000년대 페미니즘운동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힌다.³⁾ 김보명의 경우도 손희정과 일맥상통하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는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재부상과 확산’의 양상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함께 포착한다.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전략이 “자신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일간 베스

3) 손희정은 메갈리아와 해쉬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으로 대표되는 2015년의 SNS를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산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규정하는데 그에 의하면 페미니즘 리부트는 포스트 페미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SNS 상의 페미니즘 담론이 기존의 페미니즘운동과는 다른 배경으로부터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향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손희정에 따르면 2015년의 SNS 페미니즘운동을 페미니즘 리부트로 규정하는 것은 이 운동이 소비사회의 대중문화 및 매스 미디어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학적 조건과 결부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거대영화자본과 자본주의적 소비적 행위와 결부된 ‘리부트’라는 용어를 차용한다고 밝힌다. 물론 페미니즘 리부트가 그렇다고 기존의 페미니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는 ‘포스트’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트>의 민낯을 폭로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삶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조건이자 과정으로서 혐오의 정동경제학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김보명, 2018b)하였다는 것이다.⁴⁾ 이는 특히 메갈리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위마드의 ‘급진 페미니즘’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마드의 활동은 <일간 베스트>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한국 이성애자 남성들만이 아니라 게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후 래디컬 페미니즘(랫팸)을 자처하는 이러한 경향은 ‘순수하게 여성만을 챙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성소수자 남성, 이주민 남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적대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 페미니즘이 리부트되면서 대중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삶의 불안과 위태로움 속에서 주체들이 이를 타자에 대한 배제와 적대의 실천을 통해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자”(김보명, 2018a)하는 정동적 실천으로서 타자에 대해 배제적인 페미니즘의 어떤 경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 본질로 가정되며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운동에 국한되는 페미니즘의 특정 경향이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체성을 결코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 선언, 곧 연대와 투쟁의 과정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하는 <불구의 정치>가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여성공감의 선언문은 장애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지배 질서에 대한 투쟁의 방향과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장애여성공감이 동시대 페미니즘 지형에 개입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그 개입의 의미를 우리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교차성 페미니즘 인식론⁵⁾에 입각한 인권의 정치에 대한 천명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여성공감이 장애인이자 여성들의 권리를 쟁

4) ‘혐오의 정동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보명(2018a)를 참조하라.

5) 교차성 페미니즘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이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취하기 위한 실천이 어떤 정치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페미니즘 실천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그 실천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실천에 기초한 정치적 지식이 어떻게 이론과 공명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2절에서 <불구의 정치>가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억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2절에서는 장애여성공감 창립 20주년 선언문이 단지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은 타자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억압, 즉 성소수자, 이주민,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억압에 대한 장애여성공감의 인식을 억압의 교차성과 지배 매트릭스 개념과 연결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이 교차적 억압의 매트릭스에 대한 저항을 <불구의 정치>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구의 정치>가 지향하는 저항은 단지 정체성의 권리정치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선언문은 장애여성이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긍정하고 그 정체성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다른 소수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연대의 과정을 저항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연대의 과정에서 서로의 정체성은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수반하는 연대의 정치를 횡단의 정치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4절에서는 <불구의 정치>를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독해하는 작업의 의의를 정리하고 <불구의 정치>가 한국사회에서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지식을 어떻게 맥락화해 가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2. 불구화 장치, 복수적 억압의 조합

1) 불구와 되받아쳐 말하기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선언문의 제목은 적지 않은 당혹감을 읽는 이에게 불러일으킨다. 장애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20주년을 맞이하여 공표한 선언문에서 자신들을 “불구”로 명명한다는 것은 장애인운동의 일반적 감각에 반하는 일이다. 장애인운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론적 폭력에 대한 저항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분명 ‘불구’는 ‘장애자’, ‘애자’, ‘병신’ 등과 같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계열의 언어이다. 장애인운동은 이러한 멸칭들에 치열하게 저항하여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스스로의 운동을 ‘불구의 정치’로 규정하는 그 선언문의 제목은 자못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장애여성공감의 지난 실천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문의 제목에, 통상적으로 멸칭으로 이해되는 ‘불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주체가 명명된 것일까? 이러한 자기 명명은 버틀러(Butler)가 제시한 ‘되받아쳐 말하기’(speaking back)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는 되받아쳐 말하기를 통하여 혐오발언의 효과가 전복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포착한다.

말하기와 행하기 사이의 결정되지 않은 관계는 그 말하기로 부터 계획된 수행적인 권력을 박탈할 때 성공적으로 활용된다. 만일 동일한 발언이 되받아쳐 말하기(speaking back)와 그것으로 말하기(speaking through)의 계기가 됨으로써 그 발언을 건네받은 자에 의해 차지되고 변하게 된다면, 인종차별 발언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인종차별적 기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을까?..... 그런 발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발언과 관련된 권위의 장소를 변경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버틀러. 2016: 178)

‘검둥이’와 같은 흑인에 대한 멸칭, 혐오의 정념을 담은 차별적 표현에 흑인을 무기력하고 종속된 존재로 만드는 작용이 필연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검둥이’라는 표현은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그 발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들 속에서 흑인을 종속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수행적 권력이 작동과 더불어 차별적 표현으로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검둥이’라는 말을 인종차별적 발화맥락에서 벗어나게 할 때, 흑인이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권력관계에서 ‘검둥이’라는 말이 탈각될 때 그 표현의 효과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의 말과 글로 이루어진 『어쩌면 이상한 몸』에서는 불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불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불구의 정치를 통해서 단지 사회질서에 통합되기 위한 장애 극복을 거부한다. 이상한 몸은 불구의 정치를 위한 우리의 힘이다. 이런 우리의 퀴어함이 자랑스럽고, 퀴어한 존재들과 동료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장애여성공감, 2018b: 21)

성소수자를 비하하던 용어인 퀴어(queer)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전유되면서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권리체계를 재고하게 했듯이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불구’를 전유하여 새로운 권리주체의 개념과 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의 정치>는 ‘불구’라는 말을 장애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삼음으로써 장애여성을 정상성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합하지 않기에 비정상적 존재이며, 그래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낙인찍는 표현인 ‘불구’를 자신들의 주체성을 규정하는 말로 적극적으로 전용하면서 이 선언은 규범과 정상성의 권력 효과를 동요하게 한다. 즉 ‘불구’는 정상성의 척도에 입각해서 보자면 비정상적이고 무능력하여 쓸모없고 열등한 이들의 이름이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적 주체의 이름

이라고 <불구의 정치>는 되받아치면서 말하고 있는 것(speaking back)이다.

2) 불구화 장치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불구의 정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불구의 정치>는 인간 존엄성의 보편성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인권운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성은 전제될 뿐이다. <불구의 정치>는 선언문답게 빠른 호흡으로 그 보편성을 배반하는 현실의 문제로 나아간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들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장애여성공감, 2018a)

모든 인간은 존엄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는 그러한 존엄성을 부당하는 존재들이 있어왔다. ‘정상적’(normal)이라고 규정된, 그래서 규범(norm)으로 합의된 정체성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자들, 규범으로부터 벗어났기에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규범을 위협하는 존재들, 즉 규범성과 정상성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불구’로 낙인찍혀 존엄성을 거부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구의 정치>에 따르면 불구는 존엄성을 거부당한 자들의 자연적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불구는 특정한 이들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시대’, 즉 권력의 특정한 합의에 의해 선별된 존재들에게 낙인으로 부여된 이름이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불구를 선별하는 권력을 무엇보다 국가에서 발견한다.

불구의 존재들을 선별해온 국가는 정상적인 국민과 비정상적인 국민을 구분하며 불평등을 유지했다. (같은 글)

그런데 왜 가부장제, 비장애인중심성, 혹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불구’의 선별자로 지목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불구의 정치>가 불구를 선별하는 기제의 법적, 제도적 성격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과 이주민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균형법의 추행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등 법과 제도로 장애와 몸, 빈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양산하고 국민과 비국민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조장해 왔다. (같은 글)

여기서 공감의 20주년 선언문은 규범적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들을 불구로 선별하는 구체적 장치를 지목한다. 그것은 선언문에 열거된 ‘법과 제도’이다. 즉 국가만이 제정하고 설립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정상’이라고 상정된 인간과 차이를 가진 몸과 정신은 불구로 낙인찍힌다. 불구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떤 신체와 정신들을 무능력하고 권리 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과정, 즉 비정상적이고 탈규범적 존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배제하는 과정을 ‘불구화’(disablement)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즉 ‘시대와 불화는 존재들’을 ‘불구로 선별’하는 권력의 작동을 ‘불구화’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장애학 연구자들은 disablement를 일반적으로 ‘장애화’라고 옮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 혹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무능력(disability)이 되는 사태를 말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반드시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상을 입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disabled)은 이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disabling) 사회질서 혹은 권력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권력 작동의 효과를 장애학은 disablement

라고 개념화한다. (올리버, 2006; 김도현, 2019)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불구라는 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용하는 장애여성공감의 전략에 따라, 권력이 법과 제도를 통해 설정한 정상성과 규범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구’로 선별하는 방식인 disablement를 ‘불구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장애여성의 인권운동을 선언하는 <불구의 정치>가 단지 장애여성의 불구화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선언문은 ‘장애여성’만이 아니라 장애, 몸의 특성, 빈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국적 등에 따라 정체화되는 다른 소수자들의 불구화 역시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때 불구화는 단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이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권력의 작동만이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들, 이주민 등을 또한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disabling) 권력의 작동 역시 의미한다. 장애인만이 불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들 모두가 국가장치에 의해 불구화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구화는 장애학에서 말하는 장애화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⁶⁾

<불구의 정치>가 장애여성만이 아닌 다른 불구들의 선별 역시 주목하는 것은 불구화된 그 어떤 소수자들도 오로지 그들만의 고유한 ‘비정상성’과 ‘탈규범성’에 의해 불구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여성의 불구화는 단지 장애여성에 고유한 신체와 정신의 차이에 입각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여성의 불구화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재생산, 장애, 이주 및 국적 등 복합적 계기

6) 나는 다른 글에서 disablement 개념을 장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일반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이행기에 여성에 대한 역량 박탈의 과정을 추적한 페데리치의 작업을 참조하여 탈역량화(depewerment)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은 역량화(empowerment)의 반대과정으로서 수탈과 배제를 위하여 특정 존재들의 역량을 박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불구의 정치>에서 말하는 불구화가 단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권력작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구화는 탈역량화와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정훈, 2015)

들의 착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불구의 정치>에는 드러나고 있다. 각각의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은 다른 소수자들의 억압과 맞물려 있다.

<불구의 정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장애여성공감, 2018a) 그러나 장애여성은 비정상적 존재로 선별되어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경험 속에서 고립되지 않는다.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같은 글) 장애인여성은 이주민이, 성소수자가, 빈곤한 이들이 불구화되면서 함께 불구화되며 이는 다른 소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은 결코 하나의 기제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차별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경우가 있을까? 성소수자의 권리가 박탈된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던가? 장애여성공감이 수행해온 다양한 실천들이 역시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 권리 등과 같은 성적 주체로서 권리 역시 박탈당한다. 또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의 박탈이나 제한은 장애여성만이 아니라 장애남성, 빈곤층, 부랑자 등 노동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장애여성공감, 2020) 하나의 소수자 집단만이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부정의에 의해 고통 받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3) 불구화 장치와 지배 매트릭스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억압받는 사회는 또 다른 소수자 집단이 동시에 억압받는 사회이다. 이는 특정한 정체성이나 지위 집단의 억압은

단지 그 정체성 및 지위 집단에 대한 억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 및 지위 집단들에 대한 억압을 동시에 포함하는 억압의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짐을 함축한다. <불구의 정치>가 장애여성운동조직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또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차성 페미니스트 콜린스(Collins)의 지배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 개념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억압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 개념은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과 결부된 권력관계가 각각의 정체성이나 지위에 국한되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각이한 권력관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작동함으로써 지배의 가능조건을 구축한다.

지배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여러 억압이 맞물리며 작동하기 시작하고 전개되고 봉쇄되는 사회조직 전체를 지칭한다..... 서로 맞물리며 작동하는 여러 억압도 인간의 행동에 대응하여 역사적으로 특정한 형태를 띤다. 또한, 지배의 형태 자체가 변화하기도 한다. 지배 매트릭스는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여러 억압이 한 사회적 위치에서 취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권력조직이다.(콜린스, 2009: 380)

콜린스는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과 관련된 억압들이 맞물리면서 조직화된 권력의 배치를 지배 매트릭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지배 매트릭스는 초역사적 지배의 구조가 아니라 항상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 구체화된 형태를 이루는 권력의 역사적 배치이다.

지배 매트릭스는 억압의 교차성을 사유해온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집합적 사유 과정을 통해 구축된 개념이다.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억압이 단지 젠더나 인종, 혹은 계급이나 섹슈얼리티 어느 하나의 계기만으로 해명될 수 없음을 감지하면서 이를 이론적 언어로

개념화하는 인식론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 인식론적 투쟁의 과정에서 억압의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박미선, 2014; 한우리, 2018)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다층적 억압에 대한 분석이 축적되면서 억압 구조의 일반에 대한 개념으로 버려진 것이 지배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억압들은 단 하나의 계기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의 계기들이 맞물리면서 구축되며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억압들이 조직화되어 사회 전체의 지배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억압구조의 일반화는 개념의 추상적 공간에서만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콜린스는 복수의 억압이 맞물려 형성되는 억압 일반의 구조라는 추상은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됨을 강조한다. 즉 “지배의 모든 맥락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여러 억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직한다”(콜린스, 2009: 381)는 것이다.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과 관련된 복수의 억압들은 특정한 시대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특수하게 ‘조합’됨으로써 언제나 구체적인 지배 매트릭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미국 흑인 페미니스트의 억압과 저항의 경험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맥락에서 창출된 이론을 한국의 장애여성운동이라는 ‘다른 맥락’에 접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배 매트릭스의 이러한 이중적 차원, 즉 억압구조의 일반성과 역사적 구체성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억압은 구조적으로 복수의 억압들이 교차되며 작동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억압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배 매트릭스의 개념은 미국의 흑인 여성을 억압하는 지배 매트릭스와는 다른 형태의 지배 매트릭스, 곧 한국의 장애여성에게 경험하는 억압들의 역사적-구체적 조합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불구의 정치>가 강조하는 ‘억압의 선별자로서 국가’란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이주, 장애, 재생산의 문제 등과 결부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소수자를 불구화하는 장치이다. 이 불구화의 장치로

서 국가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억압들의 역사적-구체적 조합으로서의 지배 매트릭스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적 상황에서 장애여성들은 인종이라는 억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미국 흑인 페미니스트의 교차성 이론이 주목하지 않는 ‘장애’라는 또 다른 계기에 의해 관통되는 억압을 경험한다. 즉 한국의 장애여성은 미국 흑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계기가 교차하여 작용하는 억압을 경험하지만 그 각각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억압의 조합방식은 다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여성의 불구화를 이주민, 비장애여성, 성소수자, 장애남성, 가난한 사람들의 불구화와 더불어 사고해야만 한다고 파악하는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이 법과 제도라는 불구화 장치에 원인이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불구의 정치>가 억압의 선별자로 지목한 ‘국가’란 한국사회의 장애여성들을 억압하는 구체적 지배 매트릭스에 <불구의 정치>가 부여한 이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의존과 독립의 불가분성, 그리고 횡단의 정치

1) 권리의 조건으로 피억압자들의 연대

이렇게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을 불구화하는 지배 매트릭스를 국가로 규정하면서 억압의 교차적 차원을 드러낸다. 하지만 억압의 교차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그 억압의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불구의 정치>에서 불구는 단지 교차적 억압의 희생자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억압당하는 자들이지만 또한 그 억압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억압과 불화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불화는 권력의 진공 지대가 아니라 지배가 작동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불구의 정치>는 불구를 선별하는 권력의 작동 한 가운데서 불화로서의 불구의 정치가 시작된다고 선언한다.

사회와 국가는 온전하지 못한 기능이나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불구의 정치가 피어난다. (장애여성공감, 2018a)

<불구의 정치>는 지배 매트릭스를 저항 불가능한 완벽한 압제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유명한 언명처럼 공감의 선언문은 국가로 표상된 불구화-장치에는 저항의 지점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콜린스의 지배 매트릭스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콜린스에 따르면 지배 매트릭스의 역사적 구체성이란 언제나 억압에 대응하는 인간 행위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문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지배 매트릭스는 “인간의 행동에 대응하여 역사적 특정한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해, 지배 매트릭스의 구체적 형성은 항상 특정한 역사적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억압과 저항운동의 변증법적 관계”(콜린스, 2009; 380)의 효과인 것이다.⁷⁾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띤 특정 지배 매트릭스는 언제나 저항에 대한 대응 속에서 구축되며 이렇게 구축된 구체적인 지배 매트

7) 콜린스는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통하여 권력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종합하고자 시도했다고 한다. 권력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한 권력과 저항의 변증법이다. 권력에 대한 두 번째 접근법은 “권력을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특정한 지배의 매트릭스 안에서 순환하는 무형적 실체이며 다양한 위치에서 개개인들이 맺는 관계”(2009: 447)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하기 위한 고된 수단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배 매트릭스 내에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위치들의 관계를 뜻한다. 이는 권력을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적 관계로 파악하는 푸코의 권력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콜린스는 이를 통해 푸코보다는 인간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접근법은 지배의 매트릭스 안에서 개개인의 주체성이 인간의 행위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강조”(2009: 447)하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은 흑인 여성의 해방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의식’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흑인 페미니즘 사상』의 12장 “힘기르기의 정치를 향하여”를 참조하라.

릭스에는 또한 저항의 계기가 배태되어 있다. “온전하지 못한 기능이나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장애여성공감, 2018a)은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지배 매트릭스 내에서 차별받고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 역시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들을 불구로 만드는 억압 장치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불구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장애여성의 경험이 갖는 저항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애의 경험은 성장과 개발이 보편인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남다른 감각”(같은 글)이라고 이 선언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저항의 감각은 장애라는 단독적 경험의 고유성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의 환원 불가능한 경험과 위치가 곧 장애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위치를 갖는 소수자들과의 만남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ibid.)

복수의 억압들이 조합되어 형성된 지배 매트릭스 안에서 장애여성은 ‘폭력적 운명’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적 운명에 대한 저항은 장애여성이라는 단독적이고 고유한 정체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 자체가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들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다른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이 거부해야 할 폭력적 운명은 장애여성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서로 다른 소수자들은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 독특한 존재자들이고, 각이한 소수자 집단이 경험하는 억압은 그 구체성

에 있어 구별됨이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지배 매트릭스의 작동 효과는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을 불구화하는 한에 있어서 그들에게 공통적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소수적 정체성에 대한 억압은 항상 다른 소수적 정체성에 대한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

<불구의 정치>에 따르면 그래서 장애여성은 “다른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 운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장애여성의 억압이 다른 소수자 집단의 억압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장애여성의 해방은 다른 소수자 집단의 해방과 항상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구의 정치는 연대의 정치이다. 장애여성운동은 억압과 종속으로부터 장애여성의 해방을 추구한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의 탈시설운동을 전개해 왔던 장애여성 공감의 실천적 맥락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해방 과정은 골방이나 시설에 유폐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이들의 ‘독립’ 과정이기도 하다.⁸⁾ 하지만 <불구의 정치>는 의존과 돌봄 없는 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페미니즘의 통찰을 전면에 내세운다.

독립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번번이 꺾였고 존엄보단 쓸모의 증명을 강요 받아왔다. 우리는 긴 시간 겪어온 부당한 경험이 개인의 불운과 능력의 결과가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원이 없는 이들이 독립에 도달하지 못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의존과 돌봄 없는 독립은 불가능하다.(ibid.)

그러므로 해방의 과정으로서 독립의 과정은 또한 의존과 돌봄의 과정

8) 장애여성공감의 탈시설운동 인식과 경험에 관해서는 장애여성공감이 엮은 『시설사회』를 참조하라. 이 책은 장애여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장애여성, 장애남성 보호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부모 보시설, 탈가정정소년 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 수용시설을 관통하는 억압적 맞물림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저항에 필요한 소수자들의 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기도 하다. <불구의 정치>는 의존과 독립을 상호 전제적 관계에 있으며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구체적 지배 매트릭스에 의해 불구화된 소수자들이 서로 돌보며 의존하는 가운데 함께 독립해가는 활동을 말한다. 장애여성운동이 전개하는 정치가 연대의 정치라면 이때 연대는 의존과 독립의 불가분성으로서의 연대인 것이다.

그러나 돌봄과 의존에 기초한 독립이라는 연대의 정치가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그 고유한 경험과 위치를 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의 환원할 수 없는 경험과 위치의 변별성을 강조한다. 장애인 여성의 경험은 비장애인 여성의 경험과도 다르지만 장애인 남성의 경험과도 같지 않다. 여기서 <불구의 정치>가 견지하고 있는 장애여성주의 시각(disabled feminist perspective)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쉽게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다.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가는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지 알고 있다. 폭력은 구조적 차별에서 자라나며, 성적 위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를 뒤집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적 자유와 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에 도전하고 역량을 박탈하는 구조에 맞서 싸운다.(ibid.)

장애여성은 남성의 지배가 관철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여성처럼 배제의 대상이자,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비장애인 여성이 경험하는 배제, 착취, 폭력과 다른 이유에서 장애여성들

은 그러한 억압을 경험한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이 수행하는/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성폭력을 당하며 착취된다.

그러나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것은 물론 아니다. 이 폭력은 “성적 위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 체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차별’이자 ‘구조적 폭력’이다. 이 폭력의 구조 안에서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상대적 위치 차이가 폭력의 현상적 이유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주의’는 ‘장애’여성주의이기도 하지만 장애·여성주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구조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권력은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에게 ‘보호’를 말하지만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성적 위계에 기반을 둔 구조의 변혁을, 그리고 이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한다. 장애여성에게 이 권리 투쟁은 “성적 자유와 결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투쟁이며, 궁극적으로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성차별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다.

2) 횡단의 정치

하지만 장애여성 페미니스트의 투쟁은 여성의 ‘본질’을 가정하는 페미니즘의 어떤 경향에 강한 긴장을 유발한다.⁹⁾ “불구의 정치학”은

9) 계급문제나 민주정부 집권 등과 같은 의제를 내세우는 남성 진보 운동가 및 지식인들의 입장에 대하여 페미니즘 의제의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을 향해 진보 진영의 남성들은 페미니즘 내의 구별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규향의 『그 페미니즘』(〈씨네21〉, 2002년 4월호)이다. 이 글에서 김규향은 어떤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문제에는 정말이지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페미니즘을 김규향은 ‘주류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성원들은 “주류 페미니즘이 그런 저급한 사회의식에 머무는 실제 이유는 그 페미니즘의 주인공들이 작가, 언론인, 교수(강사) 따위 ‘중산층 인텔리 여성들’이기 때문”이라고

“여성 안에도 몸의 차이와 위계가 있다는 점”(ibid.)을 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고정 불변하는 정체성으로서 여성 정체성의 단일성을 가정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이 여성의 경험을 단일화하면서 장애 여성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페

비난하였다. 김규향의 이 글 이후 최보은을 시작으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김규향의 아전인수적 페미니즘 감별 및 나이브한 페미니즘 분류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이후로도 이는 진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 논쟁을 경유하여, 이선옥의 페미니즘 비판 칼럼이나 오세라비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경유하면서 재생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와 긴장을 손쉽게 지적하는 것은 반페미니스트 담론 정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면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 온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생물학적 여성만을 챙긴다’는 입장을 가진 여성대중운동의 출현으로 인해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는 단지 이론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갯팸vs쓰까’라는 구도 형성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논쟁은 대중운동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이론 진영 내에서도 전개되었다. 가령 윤김지영, 윤지선 등과 같은 논자들은 래디칼 페미니즘을 이론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쓰면서 소위 갯팸의 이론가로 부상했다. 반면 타리, 나영 등을 비롯한 연구 활동가들과 김보명, 손희정 등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생물학적 정체성이라는 단일입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정체성 및 페미니즘 운동을 옹호하였다.

2018년에 작성된 공감의 『불구의 정치』 작성에는 바로 페미니즘 내부의 입장 차이라는 배경이 있다. 물론 계급문제가 사회적 억압의 근원이고 성공한 여성들의 주류 페미니즘은 천박한 사회인식을 가졌다는 식의 저급한 페미니즘 비판이나,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퀄리즘이야말로 진짜 페미니즘이라는 식의 페미니즘을 호도하는 선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만을 진짜 여성으로 환원하면서 다른 억압들을 부차화하거나 무시하는 입장과 페미니즘 정치학 사이의 구분 역시 이제는 매우 중요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쟁점이 되었음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구의 정치>는 바로 이 쟁점에 개입하는 텍스트로 읽을 수도 있다.

미니스트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연대하는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ibid.)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불구의 정치>는 분명 장애여성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성, 장애인, 장애여성, 소수자 등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선언은 분명히 밝힌다.(ibid.) 하지만 <불구의 정치>에 따르면 그러한 정체성은 결코 단일한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다. 정체성 자체로부터 정치적 입장의 동일성이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체성은 “누구와 싸우고 연대하는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불구의 정치>가 말하는 함께 싸움, 즉 연대는 고정된 정체성들의 물리적 공동 실천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 화학적인 공동 행동이다. <불구의 정치>는 그러한 연대의 정치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적대세력의 공통성, 정치적 이해관계의 근접성, 각자 투쟁 과제를 초월하는 상위 목표의 동질성 등이 연대의 기초가 아니다. 연대의 출발점은 공감이며, 연대의 실천 과정은 정체성의 변화 과정이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질적인 존재들의 마주침과 뒤섞임, 흔들림 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토론이 공감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중심을 향하기보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각자의 경험에서 서로의 삶과 운동을 배우고, 사회적 차별을 해석하는 힘을 익혔다. 반복되는 사회의 거절과 친구의 죽음,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약속과 폭력 속에서 역설적으로 공감하는 힘과 맞서 싸우는 연대를 터득했다.(ibid.)

이 선언문은 공감을 평온한 정서적 교감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

는다. 공감은 “이질적 존재들의 마주침과 뒤섞임”의 과정,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충돌과 갈등, 혹은 긴장 속에서 서로 연루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affect)이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끝없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다. 공감은 이 평탄치 않은 충돌과 긴장 속에서 비로소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감이 연대의 시작점이다.

또한 공감은 단지 정서의 차원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불구로 낙인찍힌 자들 사이의 공감은 같은 처지에 경험하는 아픔에 대한 정서적 공명만이 아니다. <불구의 정치>가 말하는 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식론, 지배적 지식과는 다른 지식을 통해서 형성된다. 불구의 존재들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자리에서 ‘차이’의 의미를 익혔고, 또 다른 불구의 존재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 차별을 해석할 수 있는 인식론을 만들어 갔으며, 자기 해방을 위한 정치를 서로에게 배웠다고 이 선언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삶의 형성 과정 자체가 “흔들림 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토론”의 지난한 과정이었으며 이 치열한 지적 과정을 통해 공감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구의 정치>가 강조하는 ‘정체성의 변화’란 서로 이질적인 불구의 존재들이 긴장감 속에서도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상호 작용, 즉 공감의 효과이며 연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감, 연대, 정체성의 변화는 교차성 페미니즘이 저항의 정치학으로 강조하는 ‘횡단의 정치’와 공명한다.

횡단의 정치에서, 흑인 여성이나 여러 다른 집단은 “정치적 행위자”이며, 흑인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화자”가 된다. 횡단의 정치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특정한 집단적 역사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다층적 차이를 넘어서 대화하면서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나와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콜린스, 2009: 408)

횡단의 정치는 지배 매트릭스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로 인해 상대적

으로 각이한 억압을 당하는 각각의 피억압 집단들이 해방을 위해 함께 수행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횡단의 정치는 서로 차이나는 정치적 위치(position)를 가진 정치적 행위자들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 횡단적 대화는 “‘정치적 행위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고려한 연대”(ibid.)를 강조한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구체적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각 입장의 고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횡단의 정치에 함께 하는 각 집단들은 물론 “자신의 경험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에게 감정이입하여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ibid.) 억압당하는 집단이 자신의 입장에 중심을 두는 것이 “뿌리내림”이라면, 상대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전환”인 것이다.¹⁰⁾

횡단의 정치는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부차화하지 않지만 절대화하지도 않는다. 각자의 정체성이 자기 해방을 위한 핵심적 입각점이라면 다른 정체성들 간의 상호 감정이입은 자기 해방을 위한 역량의 증폭점이다. 장애여성공감의 20주년 선언문은 불구의 정치를 이렇게 규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되, 우리의 차별과 억압만이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자들과 함께, 정상성과 보편을 의심하고 싸우는 이들과 함께 의존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장애여성공감, 2018a)

장애여성운동은 자신들의 경험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정체성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장애여성운동은 자신들이

10) 콜린스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뿌리 내리기’와 ‘옮기기’(전환)의 과정을 통한 열린 대화와 연대에 기초한 정치를 횡단의 정치로 파악하는 유발-데이비스(2012)의 논의에 입각하여 흑인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특징을 횡단의 정치라고 규정한다.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만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며 자신의 경험에 고착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특권화하지도 않는다. 장애여성운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자들과 함께, 정상성과 보편을 의심하고 싸우는 이들과 함께 의존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쓰는 투쟁”을 통해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전환한다. 즉, <불구의 정치>는 교차하는 억압에 대한 투쟁은 그 교차적 억압을 경험하는 또 다른 피억압자들의 저항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저항의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여성공감이 표방하는 불구의 정치란 억압의 선별자 국가, 불구화-장치, 즉 다양한 억압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지배 매트릭스에 대항하여, 의존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독립, 공감으로부터 출발하는 연대를 통해서 저항하며 불구화된 모든 이의 해방을 함께 이룩하고자 하는 횡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4. <불구의 정치>와 장애여성운동의 정치적 지식

장애여성공감의 20년은 바로 이러한 불구의 정치를 실천해온 역사이기도 했다. 공감은 장애, 여성, 빈곤, 성적 소수성 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고민하며 투쟁해왔다. 그러한 투쟁의 형태는 다양했다. 장애여성의 독립생활(Independent Life, IL) 운동, 반성폭력운동, 장애여성 섹슈얼리티의 담론화, 춤과 연극 그리고 노래 등의 장애여성 문화운동, 교육운동, 장애여성연구, 그리고 장애여성을 억압하는 법제도에 저항하는 직접행동 등을 통해 장애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에 대항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탈시설운동, 낙태죄폐지운동,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등 다양한 연대투쟁을 통하여 또 다른 소수자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여왔다. 더불어 이 운동은 단지 전형적인 지배집단이나 억압세력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남성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기존의 저항운동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수행

해 왔다.¹¹⁾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반인권적 권력집행과 제도에 대항하여 왔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공감의 이러한 투쟁의 역사를 불구를 선별하는 국가에 대한 투쟁의 역사, 함께 싸우면 서로의 정체성을 변화시켜가는 소수자들의 연대의 역사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 투쟁과 연대의 과정을 교차성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독해했다. 교차성 페미니즘 자체가 다층적 억압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흑인여성들의 투쟁이라는 역사적, 실천적 맥락에서 탄생한 실천에 기초한 지식이자 집단적 협력 가운데 형성된 정치적 지식이다. <불구의 정치>가 교차성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독해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지식이 형성되는 맥락과 <불구의 정치>라는 선언문이 만들어지는 맥락이 공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교차성 페미니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구의 정치>는 또한 한국 장애여성운동의 경험을 통해 교차성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이 교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차적 억압을 ‘불구의 선별’, 즉 불구화로 규정하고 불구화의 장치로서 국가를 분명하게 지목한다. 그럼으로써 그 장치에 의해 불구화되는 존재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수자들임을 보여줌으로써 중층적 억압의 조합에 의해 구축되는 역사적-구체적 지배 매트릭스는 복수의 피억압자들에게 동시에적으로 작동함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리고 교차적 억압에 대한 이와 같은 인

11)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문화 및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령 2002년 발생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의 장애여성활동가 성추행 사건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에 반성폭력위원회 구성과 같은 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여성공감.2010)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장애여성공감활동가 박김영희는 “장애여성 활동가가 연대체 안에서 ‘대표’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투쟁해야 했다”(장애여성공감, 2018b: 53)고 밝히고 있다.

202 인권연구 제4권 제1호(2021. 6.)

식은 불구화 장치에 대한 저항 역시 피억압자들의 횡단적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억압만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 역시 교차적임을 <불구의 정치>는 하나의 정치적 지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불구의 정치>에 제시된 이와 같은 인식론은 이후 한국에서 교차성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성주의 실천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1.04.30, 논문심사일: 2021.05.31, 게재확정일: 2021.05.31)

참고문헌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서울: 오월의 봄.
- 김보명. 2018a. “협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34(1) : 1-31.
- _____. 2018b.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한우리 외. 『교차성×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올리버, 마이클. 2006. 『장애화의 정치』. 윤삼호 역. 대구: 대구DPI.
- 박미선. 2014. “여성주의 좌파이론을 향해서 : 흑인 페미니즘 사상과 교차성 이론”. 『진보평론』. 59: 105-125.
- 버틀러, 주디스. 2016. 『협오발언』. 유민석 역. 서울: 알렙.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 한국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 유발-데이비스, 니라. 2012. 『젠더와 민족』. 박혜란 역. 서울 : 그린비.
- 장애여성공감. 2010.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서울: 한울.
- _____. 2018a.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웹소식지>. 2018년 2월호.
- _____. 2018b. 『어쩌면 이상한 몸』. 파주: 오월의 봄.
- 장애여성공감 엮음. 2020. 『시설사회』. 서울: 와온.
- 정정훈. 2015. 「페미니즘 이후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다시 생각한다—맑스주의 정치경제학비판의 전회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페미니스트 자본주의 분석을 읽기」. 『문화과학』 83: 82-101.
- 콜린스, 페트리샤 힐. 2008. 『흑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 주혜연 역.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한우리. 2018. “교차로에 선 여자들, 1968년, 미국”. 한우리 편역. 『교차성×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Abstract>

**Disabled Feminist Social Movement, The Transversal
Politics Against Intersectional Oppression
: An Intersectional Feminist Reading of The 20th Anniversary
Declar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The Politics of disability dissenting the times”**

Jeong, Jeonghoo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political knowledge declared in the 20th Anniversary Declar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To this end, in section 2, this paper first seeks to clarify in the second section how the declaration perceives oppression of minorities, including disabled women. The declaration recognizes not just the suppression of the inherent identity of disabled women, but also the suppression of the sex minority, migrants and the poor, combined with their own oppression. This perception of the declaration will link the concepts of interagency oppression and matrix of domination. Next, in Section 3, we want to look at how the declaration grasps the resistance to this matrix of domination. The resistance that the declaration is directed at is not limited to the right-politics of identity. While affirming their unique identity as disabled women, the declaration sets the process of solidarity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 with other minorities at the heart of resistance. And we perceive each other's identities as changing in the process of this alliance. We want to understand the

*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tics of solidarity involving this change of identity as transversal politics. Finally, the conclusion in section 4 will summarize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of reading the decl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section feminism and discuss how the declaration extends that political knowledge of the intersection feminism in the context of korea.

Keywords: disabled feminist social movement,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disablement, intersectional feminism, political knowledge